

중국의 부상과 미-중 패권 경쟁 전망

1980년대 일본의 부상과 견제: 플라자 합의

- 목표
 - 미국 목표 적자 완화
 - 엔화, 마르크화 평가 절상
 - 글로벌 경제 균형 맞추기
- 결과: 엔화 대비 달러 가치 50% ↓ → 미국의 대일 적자 크게 줄지 않음

영향: 제조업 경쟁력 하락, 엔화의 부상

- 일본 GDP 비중 ↓
 -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
 - 해외 기업의 경쟁력 성장
- 국내 저금리 정책, 엔화 발행 증가 → 국내 경제 저성장

플라자 합의와 미-중 관세 전쟁

- 플라자 합의: 관세와 환율 절상 사이에서 **환율** 선택
 - 미국: 무역 적자, 달러 강세 → 국제 경쟁력 약화
 - 환율 절상 → 일본 기업의 보유 현금 가치 증가
 - 경쟁력 강화 노력, 의지 약화(해외투자를 통한 고수익)
- 대중 관세 정책(관세 정책의 기회 비용)
 1. 자유 무역 질서의 파괴
 2. 자유 진영의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 위협
 3. 브레튼우즈 체제(달러 기축통화)의 명분(자유 무역)에 대한 위협(미국체 하락)
- 유로 경제, 일본의 대응과 협력 가능성?
 - 달러 인덱스 체제 유지 VS 미국 보편 관세

200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: 압도적 세계 1위 수출 대국

- 2001년 WTO 가입 이후 급성장 → 미-중간 **골디락스 경제(고성장-저물가)**가 10년간 지속
- 트럼프 1기, 코로나에도 세계 1위 무역 대국유지
 - **중국 주도인 압도적 글로벌 제조 공급망 형성**
- 2024년 중국의 대미국 수출: 5253억 달러(대미 수입의 3배 이상)
- 트럼프 2기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의한 외투기업의 **대중국 투자 급감 및 순수출이 가속화될 가능성** 존재

미중 패권 경쟁 전망

미-일 경쟁과 차이

- 인구: 중국은 미국의 4배 이상, 일본의 10배 이상
- GDP: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 → 미국(8만 달러)추월(현재 13,000달러 수준)
- 군사력: 핵보유국, 안보리 상임이사국

미국 강점

- 자유, 민주주의, 인권, 법치의 가치
- 동맹국과의 신뢰 자산: 안정적 협력, 상생 발전의 기반(일방적 관세 부과로 위축 가능성 있음)
- 투명한 합리적 시스템
- 미국 군사력의 우위 지속, 달러 패권 지속 가능성 고려시 대체국 출현의 어려움